

#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에 나타난 東醫寶鑑의 婦人科 관련 處方과 條文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방부인과학교실

전영주, 김동일

## ABSTRACT

Study on the Theory and Prescriptions in Gynecology of 『Dongeuibogam』 Presented in 『Euimunbogam』, 『Jaejungshinpyeon』 and 『Bangyakhabyeon』

Young-Ju Jeon, Dong-Il Kim

Dept. of Ob&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guk University

**Purpose:** To clarify the influence of 『Dongeuibogam』 on three important medical books 『Euimunbogam』, 『Jaejungshinpyeon』 and 『Bangyakhabyeon』, in Chosun Dynasty.

**Methods:** To examine and compare the three medical books, with 「Uterus」 and 「Gynecology」 part in 『Dongeuibogam』 to investigate effects of theories and prescriptions of 『Dongeuibogam』 upon gynecology.

**Results:** Firstly, 『Dongeuibogam』 positively and practically reestablished the medical books existing at that time and made the high use of them in practice. Secondly, the three medical books mostly follows the formation of 「Pomun」 and 「Buinmum」 in 『Dongeuibogam』. thirdly, the three medical books inclusively accepted the theory and prescriptions of 『Dongeuibogam』 and made use of them actively in practice. Furthermore they developed other points of view i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and treatment'(辨證施治).

**Conclusion:** 『Dongeuibogam』 had great influence upon gynecology in the medical books at the latter term of Chosun dynasty. 『Dongeuibogam』 also have had huge influence upon the clinical practice in gynecology until now by making the foundation of gynecology in traditional Korean medicine.

**Key Words:** Euimunbogam, Jaejungshinpyeon, Bangyakhabyeon, Dongeuibogam

“본 연구는 2008년 동국대학교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Donggu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08”

## I. 緒 論

『東醫寶鑑』<sup>1)</sup>은 許浚(A.D.1546-1616)이 조선 중기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대 의서 86종을 집대성하여 편찬하였고, 각 의서들을 인용함에 있어 합리적인 체계로 재정리하여 임상에의 실용성을 강조한 醫書이다<sup>2-4)</sup>. 특히 『東醫寶鑑』이 편찬될 당시의 시대적 조류인 실증적 학풍은 韓醫學에도 영향을 미쳐 臨床에서 보다 實證的인 측면으로 발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東醫寶鑑』뿐만 아니라 『東醫寶鑑』을 底本으로 하여 만들어진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朝鮮 中期에서 後期로 가면서 우리 한 의학에 대한 자주적 체계 정립과 실증적 의학으로의 탈바꿈은 더욱 뚜렷해졌고 이는 『東醫寶鑑』을 근간으로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으로 그 계통을 이어 내려갔다<sup>5,6)</sup>. 이러한 경향은 『東醫寶鑑』과 後代 文獻의 婦人科 관련 부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東醫寶鑑』은 현대 婦人科에 해당하는 病證들은 內景篇 卷3의 「胞門」에 기술하고 있고, 産科와 관련된 病證들은 雜病篇 卷10 「婦人門」에 구분하여 기술하는 근대 과학적 분류를 취함으로써 歷代 醫書와의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條文의 病證과 治方을 기술함에 있어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辨證論治의 사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현대 한의학의 부인과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東醫寶鑑』의 「胞門」과 「婦人門」이 후대 부인과학의 학문

적 전개와 임상에 미친 영향과 그 수용 과정을 조사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저자들은 『東醫寶鑑』의 「胞門」, 「婦人門」을 중심으로 編制의 구성과 醫論, 處方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과 비교,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부인과 관련 주요 3종 문헌에 수용된 과정과 부인과 질환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東醫寶鑑』의 주요 處方에 대한 현대적 실험 연구 현황을 조사하여 현대 臨床의 근거를 찾고, 후속 연구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 II. 本 論

『東醫寶鑑』이 편찬될 당시의 조선은 사회적으로는 전란을 거치면서 국민 생활이 극도로 疲弊해지고 그에 따른 疾病이 蔓延하는 매우 어려운 시대였다<sup>5,7)</sup>. 또한 이 시기의 醫療 환경은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였다. 학문적인 면에서 보면 朝鮮 中期에는 高句麗 時代 『黃帝內經』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을 시초로 宋·金元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中國醫學과 明代의 新醫學이 유입되어 있었고 高麗時代부터 개발된 自國産 藥材인 鄉藥의 발달로 傳統醫學과 中國醫學이 융합되어 매우 혼잡한 시기였다<sup>2,4)</sup>. 또 이에 혼잡한 醫學思想을 정리하고 궁핍해진 국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한 綜合醫書가 절실하였기에 이런 과정에서 『東醫寶鑑』이 탄생하게 되었다.

『東醫寶鑑』은 後漢時代부터 明에 이

르는 中國醫書와 우리나라 醫書 중 총 86개의 醫書를 인용하였다. 당시 朝鮮의 醫學은 많은 醫書의 출현으로 인해 醫論이 紛紛하고 理論에 치중한 나머지 臨床에서의 활용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東醫寶鑑』은 각 醫書들을 인용함에 있어 근대 과학적 체계로 기존의 醫書들을 재정리하여 病證과 治方을 일목요연하게 수록하였고 각 醫書에 해당하는 條文과 處方의 出典을 밝혀 實證의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실용성을 높였다<sup>2,4)</sup>.

『東醫寶鑑』이 편찬될 당시의 醫流는 金元醫學의 도입이었는데 金元醫學은 『內經』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발전된 의학으로 『東醫寶鑑』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에 『東醫寶鑑』은 各門의 論述이 거의 『內經』의 인용문으로 시작되고 많은 부분에서 金元四大家의 學說을 인용하고 있다<sup>2,4,8)</sup>.

이러한 『東醫寶鑑』의 근본적 원리 추구의 실증적인 학풍은 부인과학 관련 부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후대의 부인과학 이론의 정립과 처방의 활용에도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쳐 『東醫寶鑑』을 底本으로 하여 簡明하게 편찬된 醫書들이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한 서적으로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을 대표적으로 예거할 수 있다.

『東醫寶鑑』과 이 세 의서들의 編制 및 病證에 대한 辨證과 수록된 處方을 비교하였을때 『東醫寶鑑』의 특징이 후대에 과급된 일반적 양상과 함께 세 의서들의 편찬 동기에 따른 각각의 특징이 확연히 드러난다.

『東醫寶鑑』은 編制의 구성에서 기존 의서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과학적으

로 분류하고 있고 病證에 있어서도 현대의 산부인과 분야에 해당되는 病證들이 총 망라되어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수록되어 있다. 즉 현대 부인과 분야에 해당되는 病證을 內景篇 卷三 「胞門」에 수록하였고 현대 산과학 분야에 해당되는 病證을 雜病篇 卷十 「婦人門」에 따로 구분하여 배치하고 있다.

許浚은 『東醫寶鑑』集例에서 人體構造論과 『東醫寶鑑』編制의 구성에 대해 “人身에는 안으로 五臟六腑가 있고 겉으로 筋骨肌肉血脈皮膚가 있으며, 精·氣·神이 人體臟腑의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道家의 三要와 釋氏의 四大가 모두 이것을 말한 것이다. 『黃庭經』에도 內景에 관한 글이 있고 醫書에도 內外境界에 대한 그림이 있다... 이는 道家에서 精을 얻고 醫家에서 粗를 얻은 것이다. 이 책은 內景(몸 속 모습)인 精, 氣, 神, 臟腑로 內篇을 삼고, 外境(몸 겉 모습)인 頭面手足筋脈骨肉으로 外篇을 삼는다... 그 외에 온갖 病의 증상을 雜篇으로 삼았고...”라고 밝혔다. 이는 『東醫寶鑑』이 人體構成 및 醫書의 編制에 있어 道家思想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醫書들이 疾病이나 病證 위주로 編制를 구성한 것과 달리 「胞門」을 內景篇에 배치함으로써, 許浚이 女性의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이 歷代 다른 醫書들에 나타난 부인과에 대한 개념과는 차별화된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sup>4)</sup>.

『醫門寶鑑』<sup>9)</sup>은 周命新이 景宗 4년에 편찬한 책으로 病證을 중심으로 11門의 病門을 들고, 그 病門에 해당되는 病原과 病因을 논한 다음에 治法과 用藥을 들어 古今名醫 및 자신의 경험례를 끌어 붙인 형식으로 되어 있다<sup>6,10)</sup>. 編次는

『東醫寶鑑』을 따라 하고 있고 각 條文은 病의 原因과 治法과 用藥을 소개하는 순으로 되어 있다.

『濟衆新編』<sup>11)</sup>은 正祖때 내의원 首醫였던 康命吉이 왕명을 받들어 1799년에 편술한 책으로 모두 8卷으로 이루어져 있다. 凡例에 보면 당시 正祖가 醫學을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醫書 중 『東醫寶鑑』이 가장 자세하나 문장이 번거롭고 내용이 번잡하니 여러 醫書들을 모아 그 중 요점만을 취하여 한권의 책을 만들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康命吉이 王命을 들어 편집한 醫書이다<sup>6,12,13)</sup>. 그러나 『濟衆新編』의 編制와 내용을 살펴보면 原文의 대부분은 『東醫寶鑑』의 형식을 빌리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東醫寶鑑』의 내용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

『方藥合編』<sup>14)</sup>은 1869년 惠菴 黃度淵이 완성한 『醫方活套』 1卷을 기반으로 하여 1885년에 그 아들 黃必秀가 편술한 것이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남산당의 『對譯證脈·方藥合編』은 1887년 美隱 玄公廉이 발간한 『辨證方藥合編』의 增補方을 곁들여 발간한 처방집이다<sup>15,16)</sup>. 『方藥合編』은 임상에서의 편리함을 강조하여 處方들만이 간략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목차나 수록된 處方의 분류를 보면 거의 『東醫寶鑑』을 위주로 하고 있어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세 醫書의 부인과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醫門寶鑑』은 「胞門」을 따로 두지 않고 「婦人門」안에 「經候」「崩漏」「帶下」로 條文을 구성하였다.

『濟衆新編』은 「婦人門」뒤에 「胞門」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醫學入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sup>6,12)</sup>. 「胞門」의

條文 구성은 『東醫寶鑑』과 거의 비슷한데 「腸覃石瘕血蠱」가 『東醫寶鑑』에는 「積聚門」에 있는데 비해 『濟衆新編』은 「胞門」에 위치해 있다.

『方藥合編·活套鍼線』에서는 「胞門」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婦人門」안에 「不調」「經遲」「血閉」「血枯」「產後閉」「經來身痛」「帶濁」「血瘕」「崩漏」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이들 세 醫書는 「胞門」과 「婦人門」의 기본 편제에 있어서는 『東醫寶鑑』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세부 條文의 구성 및 순서에 있어서는 거의 『東醫寶鑑』의 체계를 따르고 있다. 각 條文의 기술 방식에 있어서는 『東醫寶鑑』은 審病, 辨證, 診脈, 用藥의 형식으로 條目을 제시하였고 『醫門寶鑑』은 모든 病因을 內傷七情과 外因四氣로 나누고 이를 虛實로 구분하여 그 治法을 제시하고 뒤에 경험방을 수록하고 있다. 『濟衆新編』은 각 條文을 脈→症→治의 3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方藥合編』은 活套鍼線에 病證에 대한 處方을 나열하고 뒤에 上, 中, 下統에 處方에 따른 主治해설을 기술하였다.

한편 각 條文별 病證과 治方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東醫寶鑑』에서는 月經의 色과 塊에 따른 辨證을 風, 血熱, 虛, 濕痰, 氣滯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총 10개의 處方을 기재하였다. 經色을 좋게 할 때 四物湯을 기본방으로 하여 色에 따른 辨證에 따라 藥物을 加減하는 치료를 했으며, 虛할 때는 芎歸湯, 痰飲이 보이면 二陳湯을 기본방으로 하여 藥物을 加減하여 활용하였다.

『濟衆新編』은 이 條文의 辨證과 處

方に 대해 『東醫寶鑑』을 거의 따르고 있고, 『醫門寶鑑』은 辨證을 간략화 시켜 風濕痰, 氣滯에 대한 處方만을 수록하고 있으나 處方の 인용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인용한 부분이 많았다. 그러나 『方藥合編』에는 이러한 기술이 없어 『方藥合編』은 이 條文에 대해서는 『東醫寶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東醫寶鑑』은 「和血治法」에서 먼저 經色の 변화에 따른 處方を 나열한 후, 色不變하면서 有塊한 경우의 處方を 수록한 것으로 보아 月經이 있을 때 덩어리의 有無보다는 色の 변화에 따른 임상적 문제를 더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處方の 활용에 있어 四物湯의 基本方에 辨證에 따른 藥物의 加減을 많이 활용하였다. 이러한 융통성 있는 처방 변화는 丹溪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丹溪는 月經不調의 辨證에 대해 이전 醫家들에 비해 經色과 經質의 변화를 매우 중시하였다. 그는 『丹溪心法·破滯氣七十九』<sup>17)</sup>에서 氣와 血과 관계를 매우 중시하여 “血爲氣之配, 氣熱則熱, 氣寒則寒, 氣升則升, 氣降則降, 氣凝則凝, 氣滯則滯, 氣清則清, 氣濁則濁”이라 하였는데, 『東醫寶鑑』에서는 「月候形色」에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 『丹溪心法·婦人門』에서 月經週期不定, 月經痛, 月經色, 成塊 등에 따라 辨證에 調經하는 治法으로 四物湯을 기본방으로 하여 理氣藥 등을 적절히 加減하여 운용하였다<sup>18)</sup>. 『東醫寶鑑』은 이들 처방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東醫寶鑑』은 月經週기에 따라 先期而來하면 氣血俱熱, 過期不來하면 血虛

로 辨證하고, 月經痛은 血澁과 虛中有熱로 辨證하였으며 총 13개의 處方を 수록하였다. 『醫門寶鑑』은 辨證에 있어 『東醫寶鑑』보다 더 세분화시켜 風寒, 肝腎眞陰不足, 肝脾血弱으로 인한 경우의 辨證과 處方を 추가하였다. 『濟衆新編』은 辨證과 處方 거의 대부분을 『東醫寶鑑』에서 인용하였다. 『方藥合編』은 處方の 인용도는 높으나 月經週期和 月經痛에 관한 辨證과 處方이 풍부하지 않았다.

『東醫寶鑑』에서 經水가 或前或後, 或多或少하여 不調할 때는 調經散을 활용하였다. 이 처방은 『醫門寶鑑』 「婦人·經候」의 大溫經湯과는 藥物用量과 出典에서 차이가 있다. 調經散은 『金匱要略』에 “婦人少服寒 久不受胎 兼取崩中去血 或月水來過多 及至期不來”를 치료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東醫寶鑑』 「胞門」의 「調血治法」 「崩漏」 「帶下」에 處方으로 수록되어 부인과 질환의 여러 방면에 활용도가 높았다. 그러나 『醫門寶鑑』, 『濟衆新編』에는 이 處方の 활용이 거의 보이지 않다가 『方藥合編』에 다시 수록되어 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부인과의 經帶胎產의 제반 질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게 하였다.

臨經行腹痛의 경우, 『東醫寶鑑』, 『醫門寶鑑』, 『濟衆新編』 모두 清熱調血湯을 활용하였는데, 그 원인에 대해 『東醫寶鑑』과 『濟衆新編』은 血澁으로 인식하고 『醫門寶鑑』은 血熱로 인식하여 辨證에서의 차이가 있었다. 또 『東醫寶鑑』에서는 四物湯加玄胡索苦練根蓬朮香附子桃仁紅花黃連도 활용하였는데, 清熱調血湯엔 清熱作用을 하는 黃芩이 들어가 있고, 四物湯加減方엔 氣滯를 치료

하는 藥物들이 加味되어 있어 血熱로 인한 經行腹痛에는 淸熱調血湯, 血澁으로 인한 經行腹痛에는 四物湯加減方을 응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和血하는 處方은 四物湯을 基本方으로 한 것에 비해 調血하는 處方은 네 醫書에서 모두 四製香附丸, 七製香附丸을 공통적으로 기재하였다. 四製香附丸, 七製香附丸은 香附子 한 가지 藥物만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修治하여 降痰, 補血, 散鬱, 降火시키는 효능을 나타내며 調血하였으므로 ‘血爲氣之配’의 의미를 살린 處方으로 인식되었다.

『東醫寶鑑』은 月經不通의 원인을 心火上行, 胃弱, 失血過多, 濕痰, 脾胃鬱火, 肝脾怒鬱, 室女, 血結成癥, 血枯로 辨證하였고 降心火, 補裨養血, 祛濕痰, 行氣破血하는 處方을 다양하게 운용하였다. 「通血治法」에는 총 17개의 處方이 수록되어 있는데, 『醫門寶鑑』, 『濟衆新編』은 『東醫寶鑑』과 辨證이 거의 유사하고 處方도 많이 인용하여 『東醫寶鑑』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方藥合編』도 辨證은 『東醫寶鑑』을 따르고 있으나 處方이 많이 간략화 되어 있었다.

이들 네 醫書에서는 肝脾怒鬱로 인한 經閉에 加味歸脾湯, 血結成癥로 인한 經閉에는 歸朮破癥湯, 正半産後失血多로 인한 經閉에 十全大補湯, 濕痰으로 인한 經閉에는 導痰湯加味方을 공통적으로 활용하였다. 「通血治法」에서는 『東醫寶鑑』과 제반 醫書에서 동일하게 응용되고 있는 處方이 많고 處方의 인용도도 높아 『東醫寶鑑』이 많은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판단되었다.

『東醫寶鑑』에는 月經不調의 治法에

五積散이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濟衆新編』 「胞·通血治法」에는 經來身痛에 五積散去乾薑桂皮加羌活獨活牛膝을 쓴다고 하였고, 『醫門寶鑑』 「婦人·經候」에서는 月候不調하면서 身疼痛 生寒熱한 경우 五積散加香附子牡丹皮紅花를 활용하였고, 『方藥合編』 「活套針線·婦人」에서도 經來身痛의 症에 五積散을 수록하여 제반 醫書에는 寒으로 인한 月經不調, 身痛에 모두 五積散을 加減한 형태의 處方을 공통적으로 활용하여 五積散의 임상적 중요성이 두루 인정되었던 것으로 인식되었다. 또 通血하는 處方 중 『醫門寶鑑』에만 수록되어 있는 分心氣飲 處方도 氣鬱을 풀어 血을 行하게 한다는 관점과 특발성부중에 대한 後代 用例를 볼 때 임상적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東醫寶鑑』은 室女의 月經不行症에는 補血破血하는 處方을 사용하였고 辨證에 있어서는 간략히 기술하였다. 『濟衆新編』은 感寒과 生冷物로 인한 經閉에 『壽世保元』 處方인 小溫經湯, 加減四物湯을 추가로 인용하여 『東醫寶鑑』보다 더 구체적인 病證과 處方을 기술하였다. 『方藥合編』은 이와 관련된 條文이나 處方의 기술이 보이지 않았다. 『東醫寶鑑』은 「室女月經不行」의 病證에 있어서는 다른 세 醫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東醫寶鑑』에서는 崩漏의 원인을 衝任損傷, 濕熱, 寒, 情志憂鬱, 悲哀, 胃氣下陷, 室女 등으로 辨證하였고 총 30개의 處方을 수록하고 있었다. 『醫門寶鑑』은 『東醫寶鑑』의 辨證을 거의 따르고 있고 거기에 風冷과 暑로 인한 外因과 『景岳全書』의 惜紅煎, 玉關丸 處方

을 더 추가하고 있었다.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辨證을 거의 따르고 있지만 處方은 간략화 되어 있었다. 『方藥合編』은 崩漏의 處方에 있어 『東醫寶鑑』의 處方을 2개만 인용하고 있고 辨證에 있어서도 많이 생략되어 있었다. 대신 『景岳全書』 處方인 秘元煎, 壽脾煎, 舉元煎과 『壽世保元』 處方인 復元養榮湯<sup>19)</sup>을 수록하고 있어 崩漏의 治法에 있어서는 『東醫寶鑑』 외에 後代의 추가적인 임상경험과 이론 발전에 따른 처방을 추가하여 임상적 유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였다.

胃氣下陷으로 인한 崩漏에 대해 네 醫書에 益胃升陽湯이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를 血脫에 대해 益氣로 치료하는 대표방이라 할 수 있다. 崩漏過多로 인한 昏暈에 제반 醫書에 동일하게 수록된 全生活血湯과 崩漏 處方 중 單方으로 사용된 五靈脂散도 臨床에서의 중요성이 높은 처방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藥物 加減의 경우 荊芥와 五靈脂를 많이 加味하여 효과를 높였으며, 熱이 있는 경우 黃芩을 加하였다. 悲哀太甚으로 인한 崩漏에 사용한 黃連解毒湯은 『醫門寶鑑』에서 四物解毒湯으로 이어지다가 『濟衆新編』, 『方藥合編』에서는 활용이 줄어들었으나 나중에 『方藥合編』 적응증에 다시 기재된 것으로 보아 後代 臨床에서 많이 활용된 것으로 보였다. 室女의 血崩에 활용한 加味逍遙散은 『濟衆新編』에서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고, 『醫門寶鑑』 「婦人·經候」에서는 經水適來適斷하면서 寒熱往來하는 경우 加味逍遙散을 응용하였으므로 寒熱往來하는 崩漏에 대한 임상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歸脾湯은 『東醫寶鑑』의 「崩漏」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方藥合編』은 憂鬱로 인한 崩漏에 활용하였고, 『醫門寶鑑』은 胃氣下陷으로 인한 崩漏에 활용하여, 脾胃기능 失調로 인한 血閉와 崩漏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處方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처방은 ‘異病同治’의 좋은 예로 볼 수 있었다.

『東醫寶鑑』은 帶下의 원인을 濕熱痰積, 瘀血, 氣虛로 辨證하였고 肥瘦, 妊婦, 室女에 따라 處方을 구분하고 있고 총 24개의 다양한 處方을 수록하였다. 『醫門寶鑑』은 辨證체계는 『東醫寶鑑』을 따르고 있으나 處方을 간결하게 하면서 『萬病回春』 處方인 加減六合湯과 『醫學入門』 處方인 大烏鷄丸을 추가로 인용하고 있었다. 『濟衆新編』은 瘀血, 妊婦, 室女의 帶下에 대한 내용이 없어 『東醫寶鑑』에 비해 辨證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였다. 『方藥合編』은 帶下의 治法에 있어 二陳湯을 제외하고는 『東醫寶鑑』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東醫寶鑑』은 帶下에 대한 辨證을 다른 醫書들과 비교했을 때 제반 醫書에서 일반적으로 帶下의 主原因을 濕痰이나 氣虛로 變症하는 것과 달리 瘀血의 개념을 도입하여 溫經湯으로 치료한 張仲景의 이론을 수용한 것이나 婦人환자를 妊婦, 室女로 더 세분화하여 구분한 것은 이 책에 일관되게 흐르는 辨證論治의 사상이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네 醫書에서는 帶下의 기본 治方으로 二陳湯加味方을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陽氣虛極으로 인한 帶下의 治法에 있어 『東醫寶鑑』과 세 醫書의 治法에 차이가 있었다. 陽氣虛로 인한 帶下에 『東醫寶鑑』, 『醫門寶鑑』, 『濟衆新編』 모두

酒煮當歸丸을 활용하고 있었다. 더불어 『東醫寶鑑』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에서는 虛寒한 경우 補中益氣湯을 동일하게 處方하였고, 또 『醫門寶鑑』, 『濟衆新編』에서는 공통적으로 寒으로 인한 帶下에 五積散加香附茴香吳茱萸를 處方하고 있어 활용의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求嗣」에서 『東醫寶鑑』은 男子陽精不足, 女子陽虛, 婦人血少, 衝任虛損, 七情損傷, 肥瘦 등으로 원인을 자세히 나누고 있었다. 이러한 상세함은 『東醫寶鑑』의 다른 條文들과 비교했을 때도 두드러진 편이며, 처방 역시 총 20개로 비교적 많이 수록하고 있었다. 求嗣의 治法에 있어 『醫門寶鑑』은 『東醫寶鑑』의 辨證과 處方을 거의 따르고 있어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濟衆新編』과 『方藥合編』은 원인에 있어서는 『東醫寶鑑』과 거의 유사하나 처방 인용도는 50%로 낮은 편이었다.

네 醫書에서는 七情所傷으로 인한 不妊에 調經種玉湯을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 『東醫寶鑑』, 『醫門寶鑑』, 『濟衆新編』 모두 남자가 陽精微薄으로 인해 임신이 안 되는 경우 固本健陽丹을 활용하였다. 婦人이 有陰無陽하여 자식이 없는 경우 玉鑰啓榮丸, 煖宮螽斯丸을 활용하였다.

『東醫寶鑑』에서 求嗣를 행함에 있어 肥瘦에 따라 辨證과 處方을 달리한 것은 丹溪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였다. 丹溪는 『丹溪心法·子嗣』에서 肥瘦 체질에 다른 治法과 治方을 분류하였는데, 肥人은 行濕燥痰하며 導痰湯을 활용하고, 瘦人은 養血降火하는 四物湯을 處方

한다고 하였다. 『東醫寶鑑』은 이런 丹溪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고<sup>18,20)</sup>, 後代 醫書에도 그 맥락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외에도 『濟衆新編』은 男女求嗣에 있어 『壽世保元』 處方인 千金種字方, 補天育嗣丹, 烏鳳丸, 仙傳種字藥酒方 등을 활용하고 있고, 『方藥合編』은 『景岳全書』 處方인 毓麟珠, 附益地黃丸, 四物黃狗丸 등을 인용하고 있어 이들 의서의 경우에는 求嗣의 중요성에 의거하여 실제 임상 처방에 있어서는 다른 醫書의 유효 처방을 폭넓게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東醫寶鑑』은 惡阻의 主要原因을 痰飲으로 인식하였다. 『醫門寶鑑』은 痰飲에서 氣弱인 경우와 陰弱인 경우로 더 상세히 나누고 있었다.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辨證과 處方을 거의 따르고 있고, 『方藥合編』은 대표적인 處方 2개만 인용하여 處方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었다. 네 醫書에서 惡阻에 대해 二陳湯加味方, 保生湯을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東醫寶鑑』은 惡阻의 치료에 있어서도 丹溪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惡阻의 主要原因을 痰飲으로 보고 二陳湯을 基本方으로 한 것이나 “大千方論 半夏動胎而不用 仲景方皆用半夏 豈不知此而用乎 予治阻病累用半夏薑製炒黃用之未嘗動胎經云有故無殞是也”라 하여 半夏를 쓰는 당위성에 대한 丹溪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서 丹溪의 이론에 동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東醫寶鑑』은 惡阻 치료에 半夏茯苓湯, 芎藭半夏湯을 활용하였고, 後代에도 역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東醫寶鑑』의 「胎漏胎動」에서는



「婦人門」의 다른 부분에 비해 單方과 복합 處方을 포함해 23개의 가장 많은 처방을 수록하고 있고, 원인은 氣虛有熱, 性交, 內傷勞役 등으로 因한다고 하였다. 『醫門寶鑑』은 『東醫寶鑑』의 내용을 충분히 인용함과 동시에 怒, 脾胃弱, 火盛, 血少, 脾腎虛의 辨證을 보충하였고, 『景岳全書』 方인 五陰煎과 『醫學入門』 方인 長胎白朮丸을 추가로 기술하고 있어 「胎漏胎動」에 관한 證治는 『醫門寶鑑』이 다른 醫書들보다 풍부하였다.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辨證을 거의 따르고 있으나 인용된 處方은 간결하였다. 『方藥合編』은 氣虛有熱과 性生活에 의한 胎漏와 胎動에 대한 處方을 누락시켜 이들 구체적인 원인을 전체적인 辨證에 귀속시킨 측면이 있었다.

胎漏의 常用方으로 네 醫書에 공통적으로 膠艾四物湯, 補中益氣湯을 활용하였다.

胎動의 常用方으로 安胎飲이 네 醫書 모두에 수록되어 있었다. 다만 처방의 구체적 운용과 관련하여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비해 『醫門寶鑑』에서는 처방내용에 『醫學入門』과 『丹溪心法』의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方藥合編』 活套에서도 “冷者去芩 虛加人蔘”이라 하여 妊娠中 黃芩을 쓰는 것에 대해 『東醫寶鑑』과 약간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또한 『東醫寶鑑』에는 安胎飲에 丹溪가 “黃芩安胎者 降火也 縮砂安胎者 行氣也 若血虛而胎不安 阿膠主之”라 한 것을 인용하고 있었다. 이는 丹溪가 『格致餘論·胎自墮論』에서 墮胎의 원인을 熱로 보고 있고, 『丹溪心法·産前』에서 “産前安胎 白朮黃芩爲妙藥也 條芩安胎聖藥也”라고

하여 黃芩과 白朮이 安胎의 要藥이라고 하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세 醫書에서는 妊娠中 黃芩을 함부로 사용하여 오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症에 따라 加減을 함으로써 虛寒한 者에 대해서는 운용의 폭을 넓혔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半産」에서 그 원인을 『東醫寶鑑』에서는 血氣虛損, 勞怒傷情, 內火便動하면 墮胎한다고 하였는데, 『醫門寶鑑』, 『濟衆新編』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었다. 通用方으로 金匱當歸散을 활용하였다. 金匱當歸散은 『醫門寶鑑』 「婦人·妊娠」과 『濟衆新編』 「婦人·半産」, 『方藥合編』 上統109에 처방내용 중에서 『醫學入門』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고 『丹溪心法』의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方藥合編』 活套에서도 “素樞虛冷者 不可過服黃芩”이라고 하였다. 이 역시 安胎의 방법에 있어 安胎飲과 마찬가지로 『東醫寶鑑』과 다른 세 醫書의 黃芩에 대한 辨證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清熱安胎에 주안을 둔 丹溪의 安胎이론을 적극 수용한 『東醫寶鑑』과 달리 후대 세 醫書들은 “氣虛加人蔘”이라는 藥物加味를 추가적으로 수재하여 溫補的 安胎이론을 보완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다. 「半産」에 수록되어 있는 處方의 대다수는 『醫門寶鑑』과 『濟衆新編』에 같은 맥락으로 인용이 되어 있어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으나 『方藥合編』은 상대적으로 인용이 적었다.

「難産」에서 그 원인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産母의 恐怖, 胎元不固, 氣血虛弱, 氣血凝滯로 인식하였다. 『東醫寶鑑』은 出産을 容易하게 하는 내용으로

관련 條文을 「保産」 「瘦胎令易産」 「交骨不開難産」 「催生宜用滑利藥」 4개로 나누어 상세하게 기술하였고 處方도 모두 32개로 다양하게 수록하였다. 그러나 『醫門寶鑑』, 『方藥合編』에는 이 條文들이 합쳐져 비교적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醫門寶鑑』은 「保産」 「難産」으로 분류하고 있었고, 『方藥合編』은 「保産」 「小腹常墜」 「催生」으로 분류하였다. 또 處方の 인용도 『醫門寶鑑』이 7개, 『濟衆新編』이 5개, 『方藥合編』이 3개로 간략화 되어 있었다.

難産 관련 처방에 있어서는 內服藥 외에도 如聖膏를 出産과, 下死胎, 胞衣不下 등 出産 前後와 관련하여 妊婦에게 많이 활용하였다. 如聖膏와 같은 外治法은 환부나 신체의 일부에 직접 붙이는 방법이 기 때문에 湯藥인 內服藥보다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湯藥의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대신 처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外治法에 대한 활용이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産後에 胞衣不下로 血이 上衝하여 心胸喘急疼痛하여 危急한 症에는 네 醫書에서 牛膝湯을 활용하였다. 胞衣不下의 治方에 있어 『東醫寶鑑』은 세 醫書에 비해 8개의 다양한 처방을 수록하고 있었으나 후대에는 활용이 많이 줄어들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子癇」에서 그 원인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妊娠中風이라고만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子癇의 辨證에 있어 『醫門寶鑑』은 心肝風熱이 심한 경우에는 羚羊角湯을 쓴다고 하였고, 肝脾血虛로 인한 경우에는 加味逍遙散을, 肝脾鬱怒로 인한 경우에는 加味歸脾湯을, 氣逆痰滯

인 경우에는 紫蘇飲加竹瀝薑薑을, 氣血虧損한 경우에는 八物湯加釣鉤藤山梔를 활용하여 『東醫寶鑑』보다 더 다양한 辨證분류와 治方을 수록하였다. 『濟衆新編』과 『方藥合編』은 『東醫寶鑑』의 處方을 따르고 있었다. 또한 子癇症에 대해 네 醫書 모두 羚羊角湯을 활용하여 子癇症의 대표방이라 볼 수 있었다.

「子腫」에서 그 원인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胎中の 水가 많은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醫門寶鑑』은 「子腫」과 「子氣」의 項目을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辨證은 『東醫寶鑑』과 비슷하나 六君子湯을 활용하는 등 더 다양한 處方을 수록하고 있었다. 『方藥合編』 역시 澤瀉湯 등을 추가로 활용하였다. 鯉魚湯은 子腫의 治方으로 네 醫書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다.

「子淋」에서 그 원인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熱積膀胱, 胎氣壅滿으로 인식하였고 「子淋」의 條文 속에 妊婦轉胞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9개의 處方을 수록하였다. 세 醫書는 條文의 분류와 處方の 활용에 있어 『東醫寶鑑』보다 상세하였다. 『醫門寶鑑』은 「子淋」을 「子淋」 「轉胞」 「婦人遺尿」의 3 條文으로 분류해서 기술하였고, 『濟衆新編』과 『方藥合編』도 「子淋」과 「妊婦轉胞」로 條文을 분리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妊婦가 熱積膀胱하거나 胎氣壅滿하여 小便淋澁作痛할 때 네 醫書에서 공통적으로 澤瀉湯을 활용하였다. 補中益氣湯은 『東醫寶鑑』 「子淋」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醫門寶鑑』, 『方藥合編』에서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었다.

「子嗽」와 관련하여 妊娠 중 外感風

寒으로 인한 子嗽에 대해 네 醫書 모두 紫菀湯을 활용하고 있어 이를 子嗽의 대표방이라 할 수 있었다.

「子痢」와 관련하여 『東醫寶鑑』에 비해 세 醫書에서 좀 더 다양한 辨證과 處方을 기술하였다. 『醫門寶鑑』에서 子痢의 원인을 內傷으로는 生冷物과 脾腎虛弱, 外因으로는 暑邪濕熱로 보았다. 生冷物로 인한 손상에 藿香正氣散去半夏加白芍藥木香縮砂, 脾土虧損者는 異功散加芍藥, 下元虛者는 六味湯去牧丹加芍藥條芩木香을 활용하였고, 濕盛으로 인한 子泄에는 四苓散도 활용하였다. 『濟衆新編』 역시 『東醫寶鑑』과 비교해서 子痢症에 더 다양한 辨證과 處方을 운용하였는데, 有熱하면 芩朮湯, 風虛者는 胃風湯과 香連丸, 腸冷兼瘧痢者는 醒脾飲子를 활용하였다. 『方藥合編』 「活套鍼線·婦人」에도 子痢에 胃風湯, 香連丸이 기술되어 있었다. 胃風湯과 香連丸은 두 醫書에 공통적으로 운용되고 있었다. 이 처방에 대해서는 『東醫寶鑑』에서도 子痢症에 대한 活用例는 없으나 「大便門」에 기술되어 있으므로 현대 임상에서 활용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子痢의 治方에 있어 후대 세 醫書에서 좀 더 實用的인 處方을 운용함으로써 『東醫寶鑑』의 부족한 方論을 보충하고 있었다.

「子瘡」에서 그 원인을 『東醫寶鑑』은 寒熱로 구분하였다. 『醫門寶鑑』은 여기에 肝虛의 원인을 추가하였다. 『東醫寶鑑』, 『醫門寶鑑』, 『濟衆新編』에서는 寒瘡에 醒脾飲子, 熱瘡에 濟生石膏湯을 활용하였다. 『方藥合編』은 『東醫寶鑑』의 辨證내용은 따르고 있으나 처방의 운용에 있어서는 『東醫寶鑑』의 영

향을 받지 않았다. 『醫門寶鑑』과 『方藥合編』 「活套鍼線·婦人」에는 寒多로 인한 子瘡症에 人蔘養胃湯을 활용하였는데 『東醫寶鑑』에는 「寒門」에 수록되어 있었다.

「子懸」의 경우 네 醫書 모두 紫蘇飲을 활용하였다.

妊婦의 感冒風寒에는 네 醫書에서 小柴胡湯, 芎蘇散을 공통적으로 활용하였다. 「妊婦感寒」에 있어 『東醫寶鑑』은 다른 醫書들에 비해 다양한 處方을 활용하고 있었다. 芎蘇散은 『東醫寶鑑』은 『嚴氏濟生方』의 處方을 인용하고 있고 『濟衆新編』도 『東醫寶鑑』과 같이 『嚴氏濟生方』의 處方을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醫門寶鑑』과 『方藥合編』中統21의 芎蘇散은 『醫學入門』의 處方을 인용하고 있어 處方내용에 차이가 있었다 또 『醫門寶鑑』은 「婦人門」에는 「妊婦感寒」의 내용이 없고 「傷寒門」에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었다.

「兒枕痛」과 관련하여 『東醫寶鑑』은 그 원인을 敗血不下라고만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醫門寶鑑』은 「兒枕痛」의 條文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胞衣不下」와 「產後心腹痛」에 포함되어 기술되어 있었다. 치료 처방인 失笑散과 起枕散은 제반 醫書에 공통적으로 인용되어 있어 兒枕痛의 대표방이라 할 수 있었다. 『濟衆新編』과 『方藥合編』은 『東醫寶鑑』에 비해 辨證이 다양하였다. 『濟衆新編』 「婦人·兒枕痛」에는 血虛하면 四物湯加人蔘白朮茯苓, 胃虛하면 六君子湯을 쓰고 口渴하면 乾薑白芍藥을 加한다고 하였다. 『方藥合編』 「活套鍼線·婦人」에서도 血虛에 四物湯, 胃虛에 六君子湯을 쓴다고 기술되어 있

었다. 이 두 處方들은 『東醫寶鑑』 「婦人·兒枕痛」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역시 臨床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처방들로 인식되었다.

産後血暈의 원인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下血過多, 惡露上衝으로 인식하였다. 네 醫書 모두 下血過多로 인한 血暈에 芎歸湯을 활용하였다. 『醫門寶鑑』은 「血暈」의 條文에 「鬱冒」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있고 氣血俱虛로 인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方藥合編』 「活套鍼線·婦人」에서는 「血暈」에 全生活血湯도 기술되어 있다. 全生活血湯은 『東醫寶鑑』 「胞·崩漏治法」에 기술되어 있는데 “崩漏太多 昏冒不省... 因血暴亡”에 사용하는 處方이므로 역시 같은 맥락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血崩」의 원인에 대한 기술을 『東醫寶鑑』에서는 생략한 반면 『醫門寶鑑』에서는 五臟辨證을 추가해 肝火盛, 脾鬱不統血, 脾胃虛로 인한 경우의 證治를 기술하였다. 『濟衆新編』과 『方藥合編』에는 處方이 간략히 수록되어 있었다.

産後에 鼻衄하면 『東醫寶鑑』에서는 荊芥散, 犀角地黃湯을 쓴다고 하였는데, 세 醫書 모두 『東醫寶鑑』의 處方을 따르고 있어 臨床에서 활용도가 높은 중요 處方이라 할 수 있었다.

産後喘嗽에 대해 『東醫寶鑑』은 그 원인을 下血過多, 瘀血入肺, 産後感氣로 인식하였다. 『醫門寶鑑』과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辨證과 處方을 거의 따르고 있다. 그러나 『方藥合編』은 1개의 處方만을 인용하고 있고 대신 上統49에 『景岳全書』方인 貞元飲을 수록해 婦人血海虧損으로 인한 喘嗽에 활용하였다.

産後에 下血過多로 喘한 症에 네 醫書 모두 小蓼蘇飲을 공통적으로 활용하였다.

産後見鬼譫妄한 症의 경우 『東醫寶鑑』에서는 敗血于心, 瘀血로 因한다고 하였다. 『濟衆新編』은 病證의 변증이나 처방의 활용에 있어서 『東醫寶鑑』의 내용을 대다수 인용하고 있어 『東醫寶鑑』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醫門寶鑑』은 「産後見鬼譫妄」의 條文이 없고 『方藥合編』은 인용된 處方 수가 적어 『東醫寶鑑』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다.

産後發熱의 원인에 대해 『東醫寶鑑』은 去血過多, 惡露, 熱入血室, 瘀血, 傷飲食, 風寒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다른 세 醫書에는 惡露와 瘀血에 관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아 『東醫寶鑑』이 辨證의 분류에 있어 다른 醫書들보다 더 세분화 되어 있었다. 그러나 처방의 수록에 있어서는 다른 세 醫書들이 『東醫寶鑑』의 내용을 보충한 부분도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傷飲食으로 인한 産後發熱에 “當消導”라고만 하고 處方은 기술하지 않았으나 세 醫書에서는 『萬病回春』 處方인 理脾湯을 쓴다고 공통적으로 기술하였다. 『東醫寶鑑』에서는 感風寒으로 인한 産後發熱에 “當發散”이라고만 되어 있고 處方은 기술하지 않았으나 세 醫書에서는 모두 五積散加減方을 기술하였다. 『東醫寶鑑』 「婦人·産後發熱」에 傷寒으로 인한 경우 柴胡破瘀湯, 傷風으로 인한 경우 竹葉防風湯이 수록되어 있으나 후대 醫書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東醫寶鑑』 「婦人·産後發熱」에는 기술되어 있지 않지만 제반 醫書에 공통적으로 기재된 理脾湯, 五積散 역시 臨床에서 많이 응용할 수 있는 처방이

다. 熱入血室로 인한 產後發熱에 네 醫書 모두 柴胡四物湯, 牛黃膏를 활용하였다.

『東醫寶鑑』에서 婦人이 產後에 亡血로 인해 昏冒不省, 瞑目無所知한 症에 全生活血湯을 활용하였는데, 세 醫書 모두 인용하고 있다. 全生活血湯은 亡血로 인한 血量, 產後見鬼譫妄, 鬱冒의 症에 공통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血脫로 인한 症의 대표방이라 할 수 있었다.

『東醫寶鑑』 「胞門」 「婦人門」 질환의 歷代 인용 서적 빈도를 살펴보면 李東垣의 이론을 많이 수용한 『醫學入門』이 가장 많아<sup>21)</sup>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李東垣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丹溪의 이론을 직접 인용한 것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金元四大家의 이론 중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두 醫家를 중심으로 부인과 관련 이론과 처방을 수용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다.

李東垣은 脾胃의 元氣가 엄중히 손상되어 각종 內傷病證이 나타나게 된다고 보고 脾胃의 조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治法에 있어서도 溫補脾胃와 益氣升陽하는 法을 중시하였다. 특히 李東垣의 理論과 治法 및 治方이 잘 드러난 病證은 經閉, 崩漏, 帶下, 胎動胎漏, 產後陰脫, 鬱冒이고 그 대표적인 處方이 補中益氣湯, 全生活血湯, 益胃升陽湯이다. 실제 「胞門」 「婦人門」의 處方을 살펴보면 이 세 處方이 氣虛下脫의 여러 病證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產後頭痛」의 경우 血虛나 敗血로 인한 產後頭痛에 네 醫書 모두 芎歸湯을 활용하였다.

「產後心腹腰脇痛」의 경우 『東醫寶鑑』

은 心腹腰脇痛이 모두 瘀血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였으나 『醫門寶鑑』은 冷氣, 食滯, 脾氣虛로 인한 경우를 추가해 『東醫寶鑑』보다 辨證과 處方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었다. 『方藥合編』은 「產後心腹腰脇痛」의 條文을 따로 분류하지 않고 「兒枕痛」에서 같이 설명하고 있었다. 『濟衆新編』은 「產後心腹腰脇痛」을 「產後血瘦」의 條文名으로 기술하고 있고 處方은 『東醫寶鑑』을 따르고 있었다.

「產後泄痢」의 경우 『東醫寶鑑』은 이의 辨證에 대해 비교적 간략히 기술한 반면 『醫門寶鑑』은 「產後泄痢」를 「產後泄瀉」 「產後痢疾」로 나누어 辨證과 處方을 상세히 다루면서 食滯, 脾胃虛寒, 腎氣虧損의 辨證을 추가하고 있었다.

「產後大便秘結」은 『東醫寶鑑』에서 이 병증을 血虛多汗出로 인식하고 辨證과 處方을 간략히 기술한 반면 세 醫書에서는 다양한 辨證과 處方을 수록하고 있었다. 세 醫書 모두 血虛火燥하면 加味逍遙散, 氣血俱虛하면 八物湯, 去血過多하면 芎歸湯을 활용하여 『東醫寶鑑』의 부족한 方論을 보충하고 있다. 이러한 證治는 『壽世保元』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sup>12)</sup>. 『東醫寶鑑』 「產後大便秘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반 醫書에 공통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이 處方들도 활용도가 높은 처방들로 볼 수 있었다.

「產後浮腫」과 관련하여 『東醫寶鑑』에서는 반드시 大補氣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四君子湯을 활용하였는데, 세 醫書 모두 이를 인용하고 있었다.

네 醫書 모두 產後에 大補氣血할 때 補虛湯을, 產後蓐勞에 當歸羊肉湯을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濟衆

新編』에서는 『壽世保元』 處方인 歸朮保產湯, 豬腎湯도 활용하였다.

『東醫寶鑑』은 婦人雜病의 원인을 氣盛과 虛勞로 인식하여 變證이 다른 醫書들보다 더 상세하고 處方도 다양하게 활용하였으나 後代 醫書에는 氣盛으로 인한 治方은 없고 處方 운용도 다양하지 못하였다. 네 醫書 모두 虛勞로 인한 증상에 逍遙散을 공통적으로 활용하였다.

『醫門寶鑑』은 「産後虛弱」의 條文에 「産後虛勞」 「産後雜病」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이상의 언급한 내용을 종합 해보면, 『東醫寶鑑』은 「胞門」의 證治에 있어 다른 醫書들보다 더 상세히 수록하고 있었다. 특히 月經色, 月經週期, 月經痛, 月經不通, 崩漏, 帶下에 관한 病證에 있어서는 다른 醫書에 비해 辨證내용과 處方이 다양하여 綜合醫書다운 면모를 보였다.

崩漏와 帶下の 處方은 『醫門寶鑑』과 『濟衆新編』에는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方藥合編』에는 그렇지 못하다. 또 「求嗣」와 「保産」 「瘦胎令易産」 「交骨不開難産」 「催生宜用滑利藥」 「外貼法」 등 妊娠과 出産에 관련된 條文의 處方에 있어서는 다른 醫書들과 비교해서 뿐만 아니라 『東醫寶鑑』 内の 婦人科 관련 條文들과 비교해서도 많은 處方을 수록하고 있어 허준이 婦人의 妊娠과 出産을 매우 중요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妊娠을 중요시하는 전통 사상의 영향도 있겠지만 『東醫寶鑑』이 編纂될 당시의 時代狀況과도 연결하여 볼 수 있었다. 당시 朝鮮은 전란을 거치면서 국민의 생활이 많이 피폐해져 있었고 壬亂으로 인해 줄어든 인구를 증가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婦人과 小兒를 보호하고 출산을 늘리는 것이었다<sup>7)</sup>. 때문에 이에 관한 處方이 그 어떤 醫書보다도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醫門寶鑑』은 「胎動」 「胎漏」 「子癇」 「子煩」 「子腫」 「子淋」 「子嗽」 「血崩」 「産後嘔逆」 「産後泄痢」의 條文에 있어서 다른 세 醫書들보다 뛰어난 辨證과 다양한 處方을 수록하고 있었다.

『濟衆新編』은 「求嗣」의 處方에 있어 『東醫寶鑑』의 處方을 인용함과 동시에 『壽世保元』의 處方도 다수 수록하여 處方의 활용에 있어 더 다양화시켰으나 「産後頭痛」의 경우 처방이 빈약한 부분이 있었다.

『濟衆新編』과 『方藥合編』의 경우 「兒枕痛」의 治方에 있어서 다른 醫書에 비해 비교적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었다.

『方藥合編』은 전체적인 處方의 인용이 간략화 되어 있고 특히 月經色과 月經週期の 이상, 産後喘嗽에 관련된 처방의 수록은 부족한 면을 엿볼 수 있었다.

「惡阻」 「半産」 「子懸」 「衄血」 「感寒」 「藏燥證」의 경우 『東醫寶鑑』과 세 醫書의 辨證이 거의 유사하고 『東醫寶鑑』 수재 처방의 인용도도 높아 『東醫寶鑑』이 後代 醫書에 많은 영향을 미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

「子腫」 「子淋」 「子痢」 「産後發熱」 「産後大便秘結」의 경우 『東醫寶鑑』에 비해 세 醫書에서 더 다양한 辨證과 처방을 수록하여 『東醫寶鑑』의 부족한 方論을 보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III. 考 察

『東醫寶鑑』은 부인과 관련 부분의 내용에 있어서 金元四大家 중 특히 朱丹谿와 李東垣의 부인과 관련 이론에서 출발한 의학이론을 중심으로 醫論과 처방을 수재하여 후대 부인과학 발전에 주요한 규범과 근간을 형성하였다. 그 이후에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은 『東醫寶鑑』의 醫論과 治方を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臨床에 적극 활용하였을 뿐 아니라 『東醫寶鑑』과 다른 방향에서 疾病을 바라보는 다양한 辨證施治의 관점 등을 적절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한편 『東醫寶鑑』의 醫論과 처방이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에 轉寫될 때 각각 다른 내용과 다른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세 醫書가 개별적으로 『東醫寶鑑』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 醫書는 臨床에서 실용성을 위주로 간략화 하다 보니 『東醫寶鑑』에 비해 理論과 辨證이 부족한 부분이 다수 있고 처방의 운용에 있어서도 효능이 입증되고 흔히 사용하는 처방 위주로 간결화 시켜 기재함으로써 처방 운용의 다양함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각각의 醫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醫門寶鑑』은 病因을 外因, 內因, 虛實로 나누어 治法을 제시하여, 각 病證에 대한 病因의 인식 방법에서는 『東醫寶鑑』과 차이가 있었으나 실제 處方 운용에서는 총 282개의 처방 중 164개의 처방(59%)을 『東醫寶鑑』에서 유래한 처방으로 인용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고, 『東醫寶鑑』에 비해 處方의 설명에 있어 臨床에 응용하기 편리하게 症狀, 藥物의 用量, 服用法에 대해 자세히 언급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醫門寶鑑』의 여러 條文中에서 『東醫寶鑑』보다 다양한 辨證施治를 보여주었는데, 특히 『醫學入門』, 『景岳全書』, 『壽世保元』의 내용을 많이 인용해 보충함으로써 方論을 풍부하게 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실용성을 강조하여 다용되는 기본처방에 약물을 加減한 형태를 위주로 처방을 구성하여 활용하다 보니 처방을 다양하게 운용하지 못한 면을 보였다.

『濟衆新編』은 『東醫寶鑑』의 중복되는 부분은 줄이고 處方도 효용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處方 위주로 간결하게 하여 기재함으로써 『東醫寶鑑』과 비교할 때 내용이 대폭 간소화된 醫書이다. 그러나 「胞門」과 「婦人門」의 醫論과 기술하는 형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東醫寶鑑』의 형식을 빌리고 있고 治方に 있어서도 총 196개의 처방 중 168개의 처방(83%)을 인용하여 많은 부분에서 『東醫寶鑑』의 내용을 수용하고 있어 『東醫寶鑑』의 醫論과 治方을 後代 醫書에도 이어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였다. 또한 『東醫寶鑑』에서 간략하게 기술된 조문의 辨證이나 처방은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이론과 處方을 인용하여 보충하고, 新增處方을 추가하여 후대에 처방의 활용을 폭넓게 한 의의가 있었다. 반면 『濟衆新編』은 실용성 위주로 간략화 하다 보니 生理, 病理, 經絡, 運氣, 養生의 설명에 있어 약화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발생하였다.

그런데 처방과 醫論의 인용에 대한 측면을 보면, 『濟衆新編』은 醫論부분에 있어서는 인용된 醫書들의 出典을 밝히지 않고 處方の 出典에서도 原出典 대신 <寶鑑>으로 기술한 것이 많아 원출전의

고찰 없이 『東醫寶鑑』을 바로 저본으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醫門寶鑑』도 醫論부분이나 條文 내용 중 수록된 처방의 활용에 있어서는 인용된 醫書들의 出典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인용한 醫書의 出典을 정확히 밝혀 정확성을 강조한 『東醫寶鑑』과 대조적이며, 官立醫書이며, 종합의서로서의 『東醫寶鑑』체계의 우수성을 역으로 재조명해주는 점으로 사료되었다.

『方藥合編』은 病證과 處方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술을 찾아보기 힘들다 「活套針線·婦人門」에서 수록된 處方들을 살펴보면 총 123개의 처방 중 80개의 처방(69%)이 『東醫寶鑑』에서 인용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 『東醫寶鑑』의 처방을 인용하지 않은 病證에 있어서는 『景岳全書』와 『壽世保元』의 處方을 많이 인용해 보충함으로써 다양

한 處方의 활용을 가능하게 한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 處方과 主治症만을 간략하게 集約 서술함으로써 이론의 다양화와 深度있는 學理의 궁구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

한편 이들 네 醫書에서는 동일한 처방이 여러 病證들에 다각도로 활용되어 ‘異病同治’의 의미를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후대 세 醫書에서 더 두드러졌다. 예컨대 『東醫寶鑑』에서 二陳湯과 導痰湯과 같은 治痰의 처방을 月候不調, 經閉不通, 帶下, 惡阻 등의 治法에 폭넓게 활용한 것은 婦人科 질환에 痰의 病因을 귀납한 朱丹溪의 이론을 수용한 것이다. 丹溪는 『丹溪心法·帶下門』에서는 帶下에 燥濕하는 것이 기본적 치료라고 하여 二陳湯을 기본방으로 藥物을 加味하여 활용하였다<sup>18,20</sup>. 그 외 활용된 病證이 많은 상용 처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1-7).

Table 1. 각 醫書의 病證에 따른 八物湯의 활용 예시

病證	原因	藥物의 加減	수록된 醫書
經色이 淡	氣血虛		東醫寶鑑, 濟衆新編
經水不調 或前或後或多或少	虛		濟衆新編
經行後腹痛	虛中有熱	香附子	東醫寶鑑, 濟衆新編 醫門寶鑑
月經 週期不來	血虛		醫門寶鑑
崩漏	衝任損傷		醫門寶鑑
帶下	氣血俱虛		醫門寶鑑
胎漏	妊娠中性交	阿膠艾葉	東醫寶鑑, 醫門寶鑑, 濟衆新編
	房勞	酒炒黃芪爲君防風升麻爲使	東醫寶鑑, 醫門寶鑑, 濟衆新編
半產	氣血不足		東醫寶鑑,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子癇	氣血虧損	釣鈎藤山梔	醫門寶鑑
血暈	氣血俱虛	合二陳湯去芍藥	醫門寶鑑
產後風痙	氣血俱虛		東醫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產後大便秘結	氣血俱虛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Table 2. 각 醫書의 病證에 따른 五積散의 활용 예시

病 證	原 因	藥物의 加減	수 錄된 醫書
月候不調	風寒入內以致血凝	加玄胡索五靈脂	醫門寶鑑
經來身痛		去乾薑桂皮加羌活獨活牛膝 加香附子牡丹皮紅花	濟衆新編 醫門寶鑑 方藥合編
崩漏過多 昏暈		加防風荊芥入醋煎	東醫寶鑑
崩 漏	風 冷	去麻黃入醋	醫門寶鑑
帶 下	陽氣虛極	加香附茴香吳茱萸	醫門寶鑑, 濟衆新編
五色帶下		去麻黃加荊芥穗	東醫寶鑑, 濟衆新編

Table 3. 각 醫書의 病證에 따른 補中益氣湯의 활용 예시

病 證	原 因	藥物의 加減	수 錄된 醫書
月經不調	肝脾血弱		醫門寶鑑
經 閉	胃弱, 形瘦 氣血衰 血 枯	加川芎生地黃天花粉	東醫寶鑑,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帶 下	中氣下陷 虛 寒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胎 漏	氣 陷	阿膠艾葉	東醫寶鑑,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子 淋	氣 虛	山 藥	醫門寶鑑 濟衆新編
産後發熱	內傷挾外感	川芎白芷羌活防風	濟衆新編
産後陰脫		去柴胡	東醫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Table 4. 각 醫書의 病證에 따른 歸脾湯의 활용 예시

病 證	原 因	수 錄된 醫書
血 閉	脾胃鬱火	東醫寶鑑,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崩 漏	胃氣下陷	醫門寶鑑, 方藥合編
帶 下	虛 寒	濟衆新編

Table 5. 각 醫書의 病證에 따른 全生活血湯의 활용 예시

病 證	原 因	수 錄된 醫書
血 暈		方藥合編
産後見鬼譫妄	血暴亡心	東醫寶鑑, 濟衆新編
鬱 冒		東醫寶鑑, 濟衆新編, 醫門寶鑑, 方藥合編

Table 6. 각 醫書의 病證에 따른 芎歸湯의 活用 예시

病證	原因	藥物의 加減	수록된 醫書
子淋		木通麥門冬人蔘燈心甘草臨月加滑石	東醫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兒枕痛	氣血俱虛	三稜蓬朮玄胡索牡丹皮桃仁紅花 人蔘 二錢	東醫寶鑑, 濟衆新編 醫門寶鑑
血量	下血過多	當歸川芎各一兩 乾薑炒倍加	東醫寶鑑, 方藥合編 醫門寶鑑 濟衆新編
產後血崩		大劑芎歸湯加芍藥	東醫寶鑑 方藥合編
產後頭痛		加荊芥穗二錢	東醫寶鑑, 濟衆新編 醫門寶鑑, 方藥合編
產後大便秘結	去血過多	加防風枳殼甘草 加防風枳殼甘草各二錢薑棗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
妊娠通治			東醫寶鑑

Table 7. 각 醫書의 病證에 따른 紫蘇飲의 活用 예시

病證	原因	藥物의 加減	수록된 醫書
難產	上焦閉下焦脹 氣乃不行 不轉運		東醫寶鑑 醫門寶鑑
胎動	七情氣逆心腹脹滿		醫門寶鑑
子癰	氣逆痰滯	加竹瀝薑薑,	醫門寶鑑
子煩	氣鬱		醫門寶鑑
子懸	有熱	加條芩山梔 倍芎歸二三錢砂仁一錢	東醫寶鑑, 濟衆新編, 醫門寶鑑, 方藥合編

또한 『東醫寶鑑』의 주요 처방들은 오늘날 현대적 연구 방법에 의해 재조명되고 있다. 金<sup>22)</sup>의 溫經湯에 관한 실험 연구에서 보면 溫經湯은 시상하부-뇌하수체-난소에 작용하여 estrogen분비를 조절하고 배란을 촉진함으로써 排卵이나 月經의 病理變化를 개선시키는 작용이 있었다고 報告되어지고 있어 현재 臨床에서 보다 더 많은 活用의 가치가 있는 處方으로 사료되었다.

현대 임상에서 특발성 부중에 대해 널리 活用되고 있는 分心氣飲에 대해 朴<sup>23)</sup>의 分心氣飲 煎湯液이 白鼠의 腎臟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연구에서, 分心氣飲이 체액 및 전해질 대사와 관련된 있는 血漿 ANP의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체내 수분을 감소시키고 尿量 및 尿中 전해질 배설량을 유의성 있게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었다.

卞 등<sup>24)</sup>의 연구에 의하면 女性不妊症

에 활용되어 온 玉鑰啓榮丸의 효능 및 作用機轉을 규명하기 위한 雌性 rat의 호르몬과 및 Catecholamine 含量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生殖不能 및 內分泌障礙에 起因한 女性不妊症의 치료에 有意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胎漏의 처방인 膠艾四物湯은 김 등<sup>25)</sup>의 실험에서도 그 有意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또한 김 등<sup>26)</sup>의 실험에서 半夏茯苓湯이 妊娠 시 나타나는 惡阻 증상을 효과적으로 개선, 치료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강 등<sup>27)</sup>은 子痛에 사용하는 羚羊角湯과 腦의 혈류량과의 연관성 실험에서 羚羊角湯이 局所腦血流量을 有意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얻었고 이는 平肝 息風 및 鎮痙작용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등<sup>28)</sup>은 妊娠浮腫에 응용되는 鯉魚湯과 鯉魚의 효능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에서 鯉魚湯이 혈중 progesterone을 증가시키고 血中 estradiol-17β의 함량을 조절시키고 혈중 FSH 및 LH의 함량을 有意性 있게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최 등<sup>29)</sup>은 澤瀉湯이 임신부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에서 澤瀉湯은 妊娠白鼠의 卵着床數와 그에 대한 生胎存數率을 증가시키고 尿中 Na<sup>+</sup>의 함량을 증가시켜 임신부중을 개선시키는데 유효하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東醫寶鑑』 「胞門」 「婦人門」을 살펴 보고, 여기 수재된 처방과 조문이 후대 부인과 관련 서적 3종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東醫寶鑑』 「胞門」 「婦人門」에는 오늘날의 婦人病에 해당되는 病證이 망라되어 있고 각 病證

에 따른 辨證, 方藥도 자세히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합리적인 체계로 病證들을 재정리하여 편리하게 임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적인 理, 法, 方, 藥을 수록하였다. 이런 경향은 후대의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과 같은 조선 후기 醫書의 부인과학 관련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현대 한국 한방부인과의 大綱을 형성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 IV. 結 論

『東醫寶鑑』의 婦人科 관련 부분인 「胞門」과 「婦人門」을 살펴보고, 『醫門寶鑑』, 『濟衆新編』 및 『方藥合編』에 나타난 『東醫寶鑑』의 처방과 조문에 대해 분석한 결과, 『東醫寶鑑』은 기존에 유입된 중국 의서 및 古來의 전통 의서들을 근대 과학적 체계로 재정비하여 후대 의서의 편제 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病證과 治方을 실증적인 체계로 수록하여 임상 활용에 있어서 실용성을 높인 효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편제에 있어서 『東醫寶鑑』은 「胞門」을 內景篇에 배치하고 「婦人門」을 雜病篇에 따로 분리하여 배치하여 여성의 질환을 바라보는 관점을 역대 다른 醫書들과 차별화 시켰다. 이러한 선구적 편제의 영향에 따라 『醫門寶鑑』, 『濟衆新編』, 『方藥合編』은 「胞門」 「婦人門」의 세부 편제에 있어 거의 『東醫寶鑑』의 구성을 따르고 있었다.

『東醫寶鑑』은 月經色, 月經週期, 月經痛, 月經不通, 崩漏, 帶下에 관한 病證에 있어서는 다른 醫書에 비해 辨證과

處方이 다양하였다. 이는 『東醫寶鑑』에서 체계적인 辨證論治의 사상을 내포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인식할 수 있었다.

『東醫寶鑑』은 「求嗣」「保產」「瘦胎令易產」「交骨不開難產」「催生宜用滑利藥」「外貼法」등 妊娠과 出産에 관련된 條文에서 많은 處方을 수록하고 있어 婦人의 妊娠과 出産을 매우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전통 사상과 인구증대가 절실한 시대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었다. 「惡阻」「半産」「子懸」「衄血」「感寒」「藏躁症」條文의 경우 『東醫寶鑑』과 세 醫書의 辨證이 거의 유사하고 『東醫寶鑑』 處方의 인용도도 높아 『東醫寶鑑』이 後代 醫書에 많은 영향을 미친 조문이었다.

『醫門寶鑑』은 病因을 外因, 內因, 虛實로 나누어 治法을 제시하여 각 病證에 대한 病因의 인식 방법에서는 『東醫寶鑑』과 차이가 있었으나 실제 處方 응용에서는 59%의 處方을 『東醫寶鑑』에서 인용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고 『醫學入門』, 『景岳全書』, 『壽世保元』의 醫論을 인용해 보충함으로써 方論을 풍부하게 했음을 알 수 있었다.

『濟衆新編』은 醫論과 編制에 있어서는 대부분 『東醫寶鑑』의 내용과 방식을 따르고 있고 83%의 『東醫寶鑑』 處方을 인용하여 『東醫寶鑑』의 내용을 상당수 수용하고 있었다. 또 『東醫寶鑑』의 醫論과 治方을 後代 醫書에도 이어지게 하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萬病回春』, 『壽世保元』의 處方 및 新增處方을 추가하여 後代 治方의 활용을 폭넓게 한 의의가 인정되었다.

『方藥合編』은 病證과 處方을 중심으

로 간략하게 기술되어 있어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의 기술을 찾아보기 힘들다. 69%의 많은 處方을 『東醫寶鑑』에서 인용하였다. 또 『東醫寶鑑』의 處方을 인용하지 않은 病證에 있어서는 『景岳全書』와 『壽世保元』 등의 處方을 많이 인용해 방론을 보충하고 있었다.

□ 투 고 일 : 2008년 7월 25일

□ 심 사 일 : 2008년 7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8년 8월 8일

### 參考文獻

1. 허준. 東醫寶鑑. 동의보감 출판사. 2005.
2. 송병기. 東醫寶鑑이 婦人科學 發展에 미친 影響. 龜岩學報. 1992.
3. 김은경 등. 朝鮮後期の 婦人科學 發達史에 關한 研究.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2001;14(1):241-253.
4. 정우열. 東醫寶鑑과 許浚의 醫學사상. 龜岩學報. 1991;1:55-71.
5. 김홍균. 朝鮮中期 醫學 系統에 關한 研究.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6. 김종열. 濟衆新編의 研究. 慶熙大學校 박사학위논문. 1993.
7. 김 호. 許浚의 東醫寶鑑 研究. 일지사. 2003.
8. 박찬국. 東醫學의 成立에 對한 研究: 許浚의 東醫寶鑑을 通하여. 龜巖學報. 1991;1:23-26.
9. 주명신. 醫門寶鑑. 행림서원. 1971.
10. 하기태 등. 『醫門寶鑑』에 수록된 周命新 醫案에 對한 研究.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2000;13(1):161-185.
11. 강명길. 濟衆新編. 여강출판사. 1994.

12. 지창영. 『濟衆新編』의 의학적 고찰. 慶熙大學校 박사학위논문. 2003.
13. 지창영. 『濟衆新編』을 통해 살펴본 康命吉의 醫學思想. 慶熙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0.
14. 황도연 원저. 方藥合編. 남산당. 1992.
15. 곽금화. 『方藥合篇』 婦人科 관련 處方에 대한 연구. 東國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1.
16. 김형태. 方藥合編에 관한 연구. 大田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91.
17. 朱震亨. 丹溪心法. 北京. 北京市民醫書店. 1986.
18. 윤종원 등. 丹溪의 學術思想이 漢方 婦人科學에 미친 影響의 考察. 東國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1997;6(1):205-229.
19. 이지향. 『景岳全書·婦人規』가 조선후기 婦人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醫門寶鑑』, 『醫宗損益』, 『方藥合編』을 중심으로. 東國大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01.
20. 윤현중, 김용진. 金元四大家의 婦人科疾病 認識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學研究所論文集. 2004;12(2):129-143.
21. 김중권. 「診解胎産集要」의 書誌的 研究. 書誌學研究. 1993;9:151-193.
22. 김철원. 婦人科에서 活用되고 있는 溫經湯에 對한 研究. 大韓韓方婦人科學會誌. 1998;11(1):251-265.
23. 박중훈. 分心氣飲 煎湯液이 百鼠의 腎臟 機能 및 血漿 Atrial Natriuretic Peptide 濃도에 미치는 影響. 圓光大學校 석사학위 논문. 1995.
24. 변정환, 송병기. 玉鑰啓榮丸과 調經養血元이 雌性 Rat의 Hormone 및 Catecholamine含量에 미치는 影響. 慶熙漢醫大論文集. 1986;9:107-134.
25. 김창석 등. 膠艾四物湯이 랫드의 모체와 태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예방의학회지. 2006;10(2):31-49.
26. 김진희, 강효신. 半夏茯苓湯이 T<sub>3</sub>로 誘發된 白鼠의 妊娠惡阻에 미치는 影響. 濟韓東醫學術院論文集. 1997;2:100-115.
27. 강성현, 윤용갑. 羚羊角湯이 腦血流量에 미치는 影響. 大韓韓醫學方劑學會誌. 2002;10(1):105-112.
28. 이류리 등. 鯉魚湯이 妊娠에 미치는 影響. 慶熙漢醫大論文集. 1989;12:349-363.
29. 최희윤, 강효신. 加味安胎飲과 澤瀉湯이 妊娠浮腫에 미치는 영향. 濟韓東醫學術院論文集. 1997;2:1-18.